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국가과학원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새로 개건한 국가과학원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훌륭히 개건한 혁명사적관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서 과학의 터전, 과학으로 복무해야 할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과학을 해도 오직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서만 하겠다는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길이 빛내여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과학전시관을 새로 잘 꾸리였으며 수많은 과학연구성과 자료들과 전시품들을 전시해놓았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



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있다고 치하하시면서 온 나라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자신들의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국가과

학원에 특별상금을 배려해주시는 대해 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고 강조하시

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과학기술인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쏟으며 그들을 존중해주고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것과 함께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도 의논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과학전선을 사회주의수호의 전초선으로 믿어준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희세의 정치원로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위대한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사상으로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특출한 령도실력은 세인의 찬탄과 존경을 자아내고있다.

네 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와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은 국가행위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위용떨치며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고있다.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지난해 제국주의에 의하여 조성된 온갖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고 조선민족의 념원이 반영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 있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가지게된것은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당당하게 전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메히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수소탄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통하여 국가행위력완성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었다.

이 력사적인 사변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진보적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갖 원수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주체사상구제연구소 리사장은 강철의 령장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은 강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고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도록 하는 강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북 남 고 위 급 회 담 진 행

은 겨레와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1월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리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과 통일부 장관 조명균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북남당국은 남조선에서 열리

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북 남 고 위 급 회 담 공동보도문

북남고위급회담이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대표단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및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참가문제와 온 겨레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및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답사를 위한 선발대파견과 북측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

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현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의 접촉과 래왕,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며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9일
판문점



북남관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가시는 김정은령도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018년 정초부터 북남관계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대하여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감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신년사를 하시었으며 《핵단추》 말씀은 조미핵대결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련합뉴스》, 《동아일보》, 《노컷뉴스》 등은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핵무력완성선언에 따르는 북의 자신감을 반영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이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했다.〉고 선언하고 〈핵단추〉 발언을 한 것은 핵무기를 이미 실전배치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된다.》,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핵을 가진 사람의 여유〉를 보여주었다.》,

《김정은위원장의 핵무력완성 주장과 평창동계올림픽참가발언은 북이 미국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과 동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위원장이 핵무장력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강단있는 지도자다.》, 《김정은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대미핵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는 북이 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보이면서 〈우리도 핵무력을 가졌으니 이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와 지략에 따라 북남관계를 비롯한 조선반도정세가 주도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이

대남평화공세로 무술년 2018년의 포문을 열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관계 개선에서 주도권을 쥐고 용의주도하게 풀어나가는 데 대하여 전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등은 《김정은위원장의 의도대로 한반도 정세가 풀러가고 있다.》, 《김정은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었다.》, 《김정은위원장이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해빙의 물꼬를 던져 줬다.》고 하였다.

인제대학교 교수와 서강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북이 2018년 신년사에서 대외관계중에서 남북관계를 가장 비중있게 다루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이 큰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북남관계에서는 새로운 전환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본사기자

민족자주의 기치를 드시고

올해의 신년사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은 온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이것이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다.

민족의 생명인 자주권은 그 누가 보장해줄 수 없으며 오직 민족자체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 북남관계문제

에서도 그 주인은 용감 조선민족자신이다. 북남관계개선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조선민족이며 갈라진 강토와 혈맥을 잇는 것을 최대의 숙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뿐이다. 분별의 장본인이고 북남관계개선에 찬물만 끼여온 침략적인 외세에 의존하고 추종해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대결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며 종당에는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재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나는 북남관계사가 깨우쳐주는 교훈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이께서 시종일관 견지하여 오신 립장이고 관점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 있는 민족이라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자주에 참다운 애국애족이 있다.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민족분열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고 민족내부 문제가 외세의 룡락물이 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며 민족자주의 리념과 원칙을 절대시하시는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할 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혈육의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시었다.

그이의 고무와 격려어린 인사에는 통일성업 실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남녘겨레와 해외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다.

한없이 인자한 성품과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그이의 마음속에는 북에 있든, 남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갈라져 사는 온 겨레가 소중히 자리잡고 있다.

주체100(2011)년 12월, 민족대국상의 나날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정을 찾아 평양에 온 해외동포들에게 위로연을 베풀시었다.

그들속에는 재중조선인 총련합회조직방문단 단장으로 온 최은복의장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은총속에 그는 그후 조국에서 진행되는 주요행사들에 참가하여 주석단에도 올랐고 그이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것은 그 한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이 아니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다.

해외에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몸바쳐가고 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과 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불러주고 체류기간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게 돌봐주도록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터운 사랑과 믿음은 동포사회의 애국열의를 더욱 높게 하였다.

멀리에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와 같이 재일동포들에게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도 한량없다.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서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뜻깊은 태양절을 맞을 때마다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에도 그이께서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일본돈으로 2억 1800만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사랑과 고결한 의리에 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통성번영과 총련 애국위업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친 윤덕곤, 로재호, 남시우, 강창수 등 해외동포들이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었다. 범민련 유럽지역본부에서 책임적인 중임을 안고 사업하다 운명한 최기환동포도 그이의 은정속에 고인의 소망대로 조국땅에 안기어 민족이 아는 애국렬사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평화연합 총재였던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하였을 때에도 유가족들에게 조진과 화환을 보내시고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었으며 그의 서거 1년에 즈음하여서는 미망인인 한학자선생에게 추모의 말씀도 보내시었다.

이 감동의 화폭앞에서 남조선의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문선명총재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위원장님을 하늘 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계시는 분이시라고 하였다. 사망한 문선명총재를 내세워주시는

강은주

오랜 기간 경색국면에 처해있던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드림없는 통일의지가 뜨겁게 백백치는 력사적인 신년사가 일으킨 거대한 충격파가 행성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밝힌 신년사를 지지찬동하면서 북과 남이 손잡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불구름이 질게 드리워졌던 조선반도의 정세가 이처럼 극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날 공화국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아래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였다.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결코 그 어떤 동정이나 애원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강위력한 힘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은 지나는 력사가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한 조건에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은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환경을 마련할 데 대한 신년사의 구절구절에 바로 그 의지가 깃들어 있다.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합동군사연습연기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북남대화과 관련한 공화국의 대변한 조치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조선반도정세완화를 바라는 내외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지난 9일 북과 남은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조선에서 열리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적인 개최와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여기서 북과 남은 여러 분야의 접촉과 래왕, 교류

지구우에 우뚝 올라섰다. 세계적인 핵강국의 지위에 오른 우리 민족의 위상에 맞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의 주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은 오늘의 북남합의를 마련한 원동력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화국의 제안과 노력으로 북남관계는 올해의 시작을 좋게 떼었다. 앞으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남측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서로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경색국면에 처해있던 북남관계가 개선될 것이며 북과 남사이에서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도 고조되어 나갈 것이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를 배격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어제 오늘도 변함없는 공화국의 투철한 립장이다. 하기에 신년사에는 북과 남의 당국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데 대해 밝혀졌다.

지금 남조선당국과 집권여당, 야당들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공화국의 제안이 《경색된 북남관계를 진전시키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제안이다.》고 하면서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이 세상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역세게 걸인하는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전망은 밝다.

본사기자 김철민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최근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남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해내의 온 민족과 세인은 조선반도에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도 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유엔과 국제올림픽위원회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북남고위급회담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긍정적인 정세흐름은 북과 남이 마음먹으면 관계개선의 길을 능히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

부의 관계이며 그것이 잘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북과 남의 역할에 달려 있다.

북과 남은 온 민족과 세계가 지지환영하고 있는 오늘의 긍정적인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내부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거나 남에게 의탁하면서

본사기자 류현철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는 구태와 완전히 결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성과과여부도 그렇고 그 이후 북남관계가 계속 잘 풀려나가는 하는 것도 결국은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자주적립장에 서서 문제해결에 성의있게 나서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조선반도의 평화환경을 존중하며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사이에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안과 성의있는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오늘 공화국은 세계적 인 핵강국, 전략국가로

의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제안이다.》고 하면서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이 세상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역세게 걸인하는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전망은 밝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 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초부터 증산의 동음 높은 지방산업공장들 가운데는 동해의 항구도시에 자리잡은 원산 구두공장도 있다.

얼마전 우리는 그 공장을 찾았다. 미색과 흰색의 타일들로 산뜻하게 단장된 공장의 면모는 보기에도 정갈하였다.

우리와 만난 장승호지배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우리 공장이 오늘과 같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변모되게 된 것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배인은 공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주체98(2009)년 2월 어느 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매봉산》이 전하는 인민사랑의 이야기

는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생산한 너저구두를 손에 드시고 형태며 색깔, 무게를 느껴보신 장군님께서 구두가 좀 무거운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가볍고 더 좋은 신발을 신고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고 그들을 부러움없이 더 잘살게 하자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구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면서도 가볍고 맵시있게 만드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네해전 7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시

면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진할데 대하여 이르시고 건설력량문제로 부터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개진현대화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하여 공장은 5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개진되게 되었다.

숭고한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변모된 공장의 천지개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은 1층에 있는 사출 작업반이다. 바닥에는 풀색의 에폭시수지칠감을 바르고 천정은 루바창으로 치리한 생산현장은 마치 식료공장처럼 산뜻하고 정갈하였다. 기대들앞에서는 《원산구두공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파란의상을 단정하게 입은 노동자들이 갖가지 형태의 신발창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생산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일터에서 일하니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을 모르겠다는 윤창진작업반장의 이야기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생활환경을 일신하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갑피직장에도 들렀다. 구두갑피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인 재봉기들에서 울려나오는 고르로운 소리는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짓부시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오는 온 나라 공장들의 자강력의 동음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2층에 있는 제화직장에서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들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긍지 넘친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갖가지 형태와 색깔의 신발들이 쏟아져나오는 광경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데 진성호직장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발의 상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공장을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발의 상표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기개와 승리를 상징하는 《매봉산》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이의 이 말씀에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를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공장안의 모든 종업원들이

이런 정신과 기백으로 살며 일해나가기에 개진현대화를 실현한 그때로부터 언제나 만족을 모르고 인민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새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나날 제화흐름선에 전열 선대신 적외선등을 설치하여 전력소비도 줄이고 접착제기를 2.5배로 높여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였고 자기 지방에 혼한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구두의 경량화실현에서 또 한번 비약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해전 12월 공장을 또다시 찾으시고 지나가다 예고없이 들렀는데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답게 만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진전해나가고 고구목려하시었다.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이 차례지게 하시려 공장의 개진현대화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여러차례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을 생산하도록 로고와 심혈을 기울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있어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며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질 좋은 신발이 다량 생산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구두를 신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올해에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생산활성화의 동음 높이를 울리며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갈 공장의 밝은 래일을 확신하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지금으로부터 네해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아침일찍부터 한낮까지 그곳을 현지지도하신 그이께서는 그 길로 연 풍호로 향하시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아직 미치지 않은 험한 길을 따라 달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어 지도를 펼쳐드시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한시가 급한데 지름길로 질러가자고 하시며 성큼성큼 앞서걸으시었다. 그이의 신은 흠발림이 되고 바지가 뒀이는 먼지로 덮여지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현현히 걸으시어 연풍호에 이르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연풍호기슭의 이 자리가 과학자휴양소자리로서는 명당자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 자리는 한해전에 그이께서 두차례 밟아보시면서 휴양소를 앉힐것을 계획하신 위치였다. 휴양소 규모와 설계, 건설력량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휴양소건설구상을 무리없이 실현하시어 새해벽두에 다시금 현지를 찾으신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여름철에 보았을 때에는 숲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정말 멋있었는데 겨울철에 보는 풍경도 그에 못지 않다고 못내 기뻐하

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연풍호기슭에 건설하는 과학자휴양소를 빼낼식으 로 갖되 호수가에 재미있게 배치하여야 하겠다고, 여름에는 배놀이도 할수 있게 배도 띄워주고 스케트장을 꾸려주어 겨울에는 스케트도 타게 하며 실내에 들어와서도 심심치 않게 물놀이장을 꾸려주자고 하시었다. 휴양소호실들을 꾸릴 때 풍로있는 과학자들은 부부가 함께 휴양할수 있도록 부부호실도 꾸려주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머지않아 명당자리에 휴양소가 멋들어지게 건설되게 되는것이 기쁘시어 그이께서는 과학자들에게 휴식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여주면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몇달후면 여기가 천지개벽될것이라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지구의 갈수기와 수목선이 동쪽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차이가 생각보다 심한데 그러면 여기 에다 바다처럼 자갈을 깔아주자고 하시며 풀재 운반통로와 지어 건설력량을 전개할 자리까지 정해주시었다.

이렇듯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속에 과학자들을 위한 멋쟁이 휴양소가 건설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재부

- 순천메기공장을 찾아서 -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훌륭히 실현된 순천메기공장은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해에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자기 힘을 믿고 앞날을 낙관하며 떨쳐일어나 일떠세우고 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신 순천메기공장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땅에 늘어나는 재부들과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어떻게 마련되고 꽃피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할수 있었다.

순천지구에 메기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일떠세운 공장은 한겨울에도 메기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야외박막못들과 알개우기 호동, 실내비육호동 등으

로 이루어져있다.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자랑하는 능력이 큰 메기공장을 도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해 감탄하는 우리에게 공장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아닙니까. 우리 도의 탄부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수 있게 하는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니 좋은 착상이 절로 떠오르고 막 힘이 솟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지배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안남도에서 능력이 큰 메기공장을 잘 건설할데 대해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설계형성안을 친

히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1년이 라는 짧은 기간에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한겨울의 맵쌀 추위속에서도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실내비육호동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메기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이 년중 항시적으로 보장되는 실내비육호동에서는 수많은 메기들이 육질거리고있었다.

생산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장에서는 도내 인민들에게 펴낼 뛰는 메기를 더 많이 생산보장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자체로 팽화미생산공정

박막못에 옮겨기르게 된다면서 그는 며칠전에 실내비육호동에서 넘어온 물고기들을 기르는 다른 야외박막못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잔잔한 물면을 보며 이곳에 메기들이 몇마리정도 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말없이 웃어보이며 먹이그릇안에 놓인 룽음을기를 들었다.

그러자 잔잔하던 물면이 갑자기 끓어번지면서 먹이를 먹으려고 요동치는 메기들이 보였다.

신기해하는 우리에게 그는 메기들이 이제는 음약소리만 듣고서도 먹이 시간으로 알고 이렇게 요동친다고 이야기하였다.

말그대로 물절반, 메기절반인 양어못을 보면 서도, 창고마다에 그득한 메기들을 바라보면서 도 우리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에 넘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강 류 성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보수 《정권》은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을 실시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인민들을 박해 탄압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었다. 하여 북남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여러 갈래의 대화와 다방면적인 접촉, 래왕과 협력사업들에 차단봉이 드리워지고 6.15의 성과들은 깡그리 유린말살되었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 항쟁에 의해

여 파썬통치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아직도 남아있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 《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를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중식되어야 한다

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 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는것이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북과 남은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김 영 진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주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충분한 지혜, 능력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과업들을 명백히 밝히시었다.

반만년의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최초의 천문대와 금속활자도 만들어낸 슬기롭고 재능있는 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오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겪어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이다.

조국통일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 능력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로서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조국통일운동의 력사는 조국통일의 주체의 위력을 강화할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특히 6.15자주통일시대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리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자,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할것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섰다. 당국과 민간의 따로 없이 사상과 정견,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사이에서 진행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사업,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은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반통일적인 보수세력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 항쟁에 의하여 파썬통치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동족대결정책은 계속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민족주체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을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 민족중시, 민족제일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 자주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하여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통일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에 등을 돌려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 《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장

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를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 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의 신년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지금 남녘의 각계각층도 절세위인의 신년사를 접하고 《적극적인 환영》,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환영해나가고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민족의 앞길을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가 절세위인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때 자주통일의 그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고 영 식

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 로선과 조선의 대외정책적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민

본사기자 김 철 민

시묵음

8천만이 함께 쓰자 통일의 새 역사를

통일의 태양으로 빛나신다

김 윤 식

저 하늘에 솟은 해는
 눈으로 본다 하라
 허나 우리 심장에 비쳤노라
 2018년 새해의 아침
 겨레의 앞길 찬란히 밝히는
 눈부신 통일의 태양을

분렬의 암흑세월 불사르시며
 겨레앞에 나서신 태양의 존안이어
 통일에 대한 념원
 겨레에 대한 정이 그리도 불같이시여
 터놓으시는 진정 불처럼 뜨거우신가

구절구절 애국의 넋 불리일키며
 우리 함께 통일의 새 역사 써나가자 호소하실 때
 아, 통일조국의 눈부신 해맞이런듯
 천지의 푸른 물도 걱정에 파도치고
 한나산 백록담도 환희에 출렁이여라

심장이 없이 살수 없다면
 그 심장을 주신것이다
 캄캄한 어둠의 길 빛없이 갈수 없다면
 그 빛발을 주신것이다
 원수님 밝혀주신 통일의 경륜이어

듣는가, 원수님의 뜨거운 말씀

높뛰는 심장처럼 분렬을 태우는 불길처럼
 겨레의 가슴에 새겨주시는
 절세위인의 통일진리
 그 넋에 그 뜻에 겨레가 매혹되는
 뜻깊은 2018년의 첫 아침

무슨 말로 감사드리랴
 헤어져 사는 겨레의 모진 아픔도
 얼음장같은 분렬세월이 칭칭 감긴 이 땅도
 태양의 열화로 녹여주시며
 민족의 화해, 통일의 길 밝혀주신
 원수님의 하해같은 그 은공을

일심으로 받들고 따르리
 민족의 은인, 통일의 령수 김정은장군
 겨레가 맞이할 통일도
 민족의 눈부신 미래도
 오직 그이의 거룩한 손길따라
 삼천리에 밝아오리니

오, 희망찬 2018년
 통일의 태양 우리리
 삼가 경하를 드리노라
 부강번영할 통일강국의 앞날로
 온 겨레를 이끄시며
 북남삼천리에 찬연히 빛나시라!

묻는다 민족의 광섬앞에

김 송 립

해마다 새해의 첫 아침이면
 우리 겨레 누구나 소원했어라
 대결의 동토대 밀려가고
 평화의 봄빛 마스히 비쳐들기를
 불구름 가셔진 저 푸른 하늘아래
 우리 아이들 웃음 꽃처럼 아름답기를

묻노니 겨레여
 우리 불처럼 타는 이 마음 없으며
 맞고 보낸 해는 그 몇몇해
 언제까지 그 소원 안타까이 부여안고
 아픔의 날과 달 보내야 하는가

홀려간 세월은 보여주고있더라
 겨레가 뜨거운 손 맞잡지 못하고
 서로 대결의 총구를 내뿜 때
 하늘엔 불구름 가실날 없고
 그만큼 통일은 아득히 멀어졌음을

대답해보라 민족의 광섬이어
 가슴에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다면
 심장에 끓는 소원이 통일이라면
 또다시 이해를

대결과 불신으로 보낼수 없지 않느냐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이 세월
 우리 결단코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언제 가도 민족의 화합도
 꿈에도 소원인 통일도
 삼천리에 안아올수 없거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범접 못할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민족
 그 슬기론 기상, 무한대의 힘을 떨치며
 기어이 안아오리라
 분계선이 없는 하나가 된 통일조국을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
 세세년년 누려갈 통일조국의 미래
 8천만이 얼싸안고 함께 울고웃을
 통일의 그날을 위해
 전쟁을 막아 산악처럼 일떠서라
 평화를 위해 격랑되어 일떠서라

아, 희망속에 밝아온 새해의 아침처럼
간절히 불타는 겨레의 념원

전쟁이나 평화나
분렬이나 통일이나

민족의 광섬이어 대답하라
새해의 물음앞에 력사의 물음앞에

우 리 만 나 자

리 송 일

삼천리강토에 새해가 밝았다
 남녘의 형제여
 우리 흥금 터놓고 말해보자
 대결과 불신으로 얼룩진 지난 세월처럼
 우리 또 삼백예순다섯날을 보낼것인가

대대손손 한강토, 한하늘아래서
 한피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분렬세월 아무리 모질다한들
 어찌 피를 나눈 혈육의 정까지 잃으랴
 불화와 반목의 멍에 벗어던지지 못하랴

돌이켜보자, 환희와 격정의 시대
 6.15가 준 감격의 그 날과 달들을
 열려진 하늘길 배길 땅길따라
 북과 남이 서로 오가던 시대
 만나 순간에 정이 통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그 나날들을

북과 남의 겨레들아
 어찌 소중하고 귀중한 그 나날들
 홀려간 세월의 추억속에 묻고
 가슴에 애라는 그리움으로만 안고 살라

반목과 질시의 비극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차라리 말하지 말자 한민족이라고

오해와 불신을 털어버리고
 분렬과 대결의 세월 저 멀리 밀어던지고
 만나자, 우리 만나 함께 가자
 통일의 태양이 밝혀주신 진로따라
 화해와 단합의 대통로 열어나가자

그 누가 열어주지 않는 길
 기다려 저절로 열리지 않는 길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뜻과 정을 합치고
 마음맞춰 발맞춰
 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
 세계가 우리를 지켜본다
 겨레여, 우리 만나자
 모여앉아 조국의 래일을 설계하자
 저 푸른 삼천리 하늘가에
 통일의 환희가 짝 차넘치게

더 높이 들자 민족자주의 기치

김 영 일

분렬의 년륜을 새겨야 할 해인가
 2018년은
 8천만겨레여, 생각해보자
 이 땅의 분렬이 왜 70년을 넘겼는지

3천만겨레가 8천만이 되도록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우리 겨레 애라게 통일을 바랬건만
 어이하여 분렬은 지속되었던가

통일을 불러 흘린 눈물 적었더냐
 통일을 위해 바친 피가 모자랐더냐
 그리움에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 가슴가슴들을 헤쳐보라
 그것은 외세가 남긴 상처다

생각해보라
 우리 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그들이 동정이나 했던가, 우리 겨레를
 혈육이 그리워 피눈물을 흘릴 때
 북남간에 서로 썰기를 치며
 어부지리만 추구했거니

이런 외세를 믿고
북남관계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

언을것이란 동족대결과 전쟁뿐
어이 이룰수 있으랴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70여년의 분렬력사가
 준절히 깨우쳐주나니
 북남관계의 주인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끼리 마주앉아
 오해와 불신을 털어버리고
 통일의 출로도
 우리 민족끼리 마음합쳐 열어가자

심장에 새기자, 8천만겨레여
 새해의 첫 아침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 하신
 통일태양의 절절한 그 호소

그 애국의 호소 심장에 새겨안고
 겨레여, 통일의 년륜으로 새기자
 2018년을
 우리 민족끼리 굳게 잡은 손으로
 8천만이 함께 쓰자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관계개선의 귀중한 첫걸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념원
 해온 우리 겨레에게 새해의
 시작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
 다. 지난 9일 온 겨레와 내외
 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판
 문점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
 회담에서는 남조선에서 열리
 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
 대회의 성과적인 개최와 북남
 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나
 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
 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
 렵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
 레는 새해의 첫 기슭에서 소중
 한 북남합의가 마련된것을 다
 같이 기뻐하고있으며 합의들
 이 성과적으로 리행되어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불과 며칠어
 간, 력사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고 할수 있는 이 짧은 시간에
 대결과 불신으로 얼룩졌던 북

남관계가 극적인 전환의 길에
 들어섰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
 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
 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
 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
 날수도 있다고 하신 절세위인
 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펴
 쳐져 온 겨레의 가슴을 벅차
 게 하는 북남합의가 마련된것
 이다.

북남고위급회담이 신속히 열
 리고 여기에서 북남합의가 이
 료된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
 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려는 공화국의 적극적인
 며 주동적인 제의에 의해 마련
 된 소중한 결실이다.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
 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
 로 도와주는것은 옹당한 일이
 며 무슨 일에서나 시작을 어떻

게 떼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은 이번 공동보도문
 을 통해 군사적긴장상태를 완
 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
 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접촉과 래왕, 교
 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
 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북남선언들의 기치아래 북
 과 남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
 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
 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면 경색국
 면에 처해있던 북남관계가 점
 차 개선될것이며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될것이다.

이번에 북남고위급회담을 통
 해 북과 남이 함께 내딛은 의
 미있고 좋은 첫걸음이 북남의
 화해와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지금 온 겨레
 는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속

전쟁불장난소동을 완전 중지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겨울철을리프경기대회 이후로 일시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과 그에 대한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여론을 외면할 수 없게 된에서 출발한 것이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노린 북침핵전쟁 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미국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사상최악의 대조선정책을 내걸고 그 무슨 《핵, 미사일위

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핵선제공격훈련들을 광란적으로 벌립으로써 조선반도에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을 조성하였다.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첨단 군사장비들, 핵선제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이 벌려놓은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상적으로 떠돌고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위협당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제국주의강대국자인 미국은 조선민족에게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들켜위서라도 저들의 패권전략을 실현해보려고 북침핵전쟁연습에 미쳐달뼉었다. 트럼프가 《전쟁이 일어나도 조

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수 천명이 죽어도 거기에서 죽을것》이라고 서슴없이 폭언을 늘어놓은것은 미국의 날강도적이며 살인적인 흉심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미국의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이다.

하기에 해내외 온 겨레는 물론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은 한결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위험천만한 긴장격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하고있다.

더우기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는 고무급회담이 진행되고 의의있는 진전이 이루어져 북남관계가

선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와 소망이 급격히 커지고있다.

조선반도는 결코 미국의 핵전쟁놀이터가 아니다.

이 땅에 화염을 퍼부어 신성한 강토를 괴로 물들일 모든 핵전쟁연습은 연기가 아니라 완전히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현시기 합동군사연습을 완전중지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미국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용단으로 된다.

대조선핵선제타격을 위한 핵전초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지역은 공화국의 핵타격사정권안에 들어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은 전략적외관으로 인한 실패와 수치의 과거에서 이제라도 심각히 교훈을 찾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려는 극악한 도발행위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사이에는 고무급회담이 진행되고 일련의 합의가 이룩된것으로 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격화된 긴장상태를 완화할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애쓰는 세력이 있다.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난 5일 일본에 있는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와 미본토에 있는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조선반도전개를 공표한 미국은 핵항공모함 《스페리너》호도 곧 서해평양지역으로 출동시킬 계획이라고 떠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들은 《칼빈슨》호의 항해속도를 고려할 때 조선반도에 전개되는 시기는 남조선에서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개막되기 전인 1월말~2월 초쯤이며 현재 일본에 배치되어있는 《로날드 레간》호까지 포함하면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이 한꺼번에 조선반도주변에 집결되게 된다고 하면서 이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하고있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에 있는 7개 미공군 기지들에 미본토로부터 각종 전투기와 병력들을 대량 끌어다놓았으며 일단 유사시 1개 사단규모의 미해병대부대를 상륙시킬수 있는 《와스프》, 《본홈 리차드》, 《아메리카》 등 3개의 상륙직승기모함단을 예정항로를 변경시켜 조선반도주변에 끌어들이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안과 노력에 의해 조성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도전해나서는 용납 못할 군사적도발이다.

미국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화해의 기회를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북남대결을 부추긴 장본인으로서 이에 응당 책임을 느끼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통일을 방해하는 일체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북남사이에는 관계개선의 기운이 나라날 때마다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며 판을 깨는 비렬한 놀음을 벌려왔다.

특히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북남사이에는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협력과 교류가 진전될 때마다 미국의 반통일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미국이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

표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시대가 펼쳐지자 그것을 배아파하며 이모저모로 악착하게 방해해나선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10.4선언발표로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마련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친미보수 《정권》의 조작으로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이번에도 미국은 말로는 북남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와 주변에 끌어들이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놓고있다가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하여 군사적모험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사실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날날이 고발해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을 방임해둘 때 어렵게 마련된 북남사이의 대화와 화해국면이 시작부터 난관에 직면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현실은 정세를 고의적으로 전횡정경으로 몰아가며 북남사이에는 또다시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모처럼 마련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대결의 타성을 버려야

올해는 북과 남에 있어서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하여 공화국은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제안들을 내놓았다.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데 대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들은 북과 남은 물론 온 세계에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에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어 온 겨레에게 또다시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다.

공화국은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

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하여 공화국을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제안들을 내놓았다.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데 대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들은 북과 남은 물론 온 세계에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에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어 온 겨레에게 또다시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다.

공화국은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

뒤틀린 소리를 하며 북남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의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북과 남의 관계개선을 분위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장장 70여년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역사는 동족대결에 매여달리는자들은 하나와 같이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수치스러운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적으로 리명박, 박근혜 《정권》의 운명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과도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어놓고있는 공화국의 진정어린 제의를 외면하고 대결의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의 행위는 평범한 사람도 아닌 정치인으로서 그들이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

하는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이 민족의 거세한 통일대화에 합세하지 못하고 역행해나선다면 그들은 시대의 거품이 되어 민족앞에 떴떴한 모습으로 나설수 없게 될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남조선의 초분민심과 온 겨레가 무엇을 바라는지 똑바로 가려보고 선입자들의 부끄러운 대결정책과 과감히 결별하고 민족사의 거세찬 화해흐름에 합류해나선것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법에 의하면 퇴물액수가 10만US\$이상인 경우 최소 정역 10년, 46만US\$이상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YTN》,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남조선의 언론들은 박근혜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사 무기징역을 면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엄중하고 여러가지인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정역 30년)에 그 절반을

추가하여 언도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역 45년은 피할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고있다.

그런 속에 최근 박근혜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으려고 고

하고 《전두환추징법》을 적용하여 년의 재산을 동결하고 전부 몰수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박근혜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다.

예로부터 죄지는자 벌을 피할수 없다고 온갖 못된짓만 골라한 박근혜는 알거지신세에다 감옥안에서 비명횡사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그가 누구이든 민족을 등지고 민심에 역행하면 천벌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련 옥

리명박구속을 위한 투쟁 전개

보도들에 의하면 6일 남조선 각계층이 서울의 여러곳에서 리명박구속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리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와 《MB잡자 특공대》의 주최로 역도의 집 주변에서 《명박산성》포위를 위한 초불투쟁이 있었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온 각계층 시민들도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MB구속! 적폐청산!》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학동역앞에서부터 역도의 집을 향해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리명박구속을 요구하는 함성을 터치며 역도의 집 30m앞까지 다가간 시위자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초불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때문에 4대강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군수업체와 관련한 부

정부패행위, 언론탄압, 미국산 소고기수입 등 리명박을 구속해야 할 이유는 많다고 그들은 성토했었다.

그들은 리명박이 집권기간 돈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컸으며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외면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공약하고는 저만 잘살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을 안했다면 리명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하였다고 단죄하였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MB구속 시민연합》의 주최로 초불집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리명박이 정보원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당선시켰다고 단죄하였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그를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

였다.

집회가 진행되는동안 주변에서는 리명박의 구속을 요구하는 100만명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본사기자

갈수록 비참해지는 운명

용변호인과 공모하여 막대한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빚고있다. 남조선의 검찰은 《국정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의 성격을 박근혜의 개인부정부패범죄로 규정

본사기자 서 희

남조선대 학생들 리명박구속을 위한 투쟁단체 결성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4일 남조선의 대학생진보연합 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명박심판을 위한 대학생취잡이특공대 결성을 선포하고 역도의 구속과 특검수사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이 집권기간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부정부패범죄를 저질렀으며 정



돈과 직업, 일터와 조국

《동생한테서 우편배달을 해 보고싶다며 연락이 왔어. 한시간넘게 통화하면서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라고 했지. 그 일을 하면 최저임금도 보장받기 힘들거든.》

언제인가 사업처로 서울에 갔을 때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난적 있었다. 오랜만에 회포를 나누다가 남쪽사회에서의 심각한 취업난이 화제에 올랐는데 비정규직으로 있는 동생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음식배달업체에 집안의 명줄을 건 자기기도 얼마 안되는 품삯으로 겨우 살아가고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동생마저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해 이일저일 닥치는대로 해가고있으며 눈물이 글썽해서 말하였다.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써비사업이 떠오르고있지만 정착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응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었던것이다.

변호사, 의사, 금융, 귀금속 및 보석세공과 같은 직업들과 달리 우편배달이나 식당바다 청소, 그릇닦기와 같은 로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돈이 모든것을 좌우지하는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기준은 철두철미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더 많은 일을 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든가, 《애국》이니, 《량심》이니 하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환경에서 나서자란 나머지 세상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있듯이 좋은 직업과 천한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은 불우한 인생을 사는 사람

들이 먹고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것으로 여겨왔다. 하기에 북부조국을 방문할 때 나는 그 기회에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알아보리라 속다짐했었다. 하지만 북부조국의 현실은 애초에 생각했던것과 너무나 달랐다.

무릇 지구상에 있는 나라마다 하루의 시작과 더불어 펼쳐지는 모습도 각이하다. 일자리를 찾아 이른아침부터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들로 거리가 메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겨울의 긴긴 밤을 추위에 떨며 한지에서 새운 울분을 터치는 시위자들의 항변이 도시의 아침을 흔드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북부조국에서의 하루는 사람들의 희망넘친 아침출근길에서부터 시작되고있었다. 밝은 얼굴로 활기있게 걸음을 다그치는 사람들, 거리를 돌며 누비며 경쾌하게 달리는 전차와 버스들... 또 하루 혁신을 약속하며 어깨나란히 공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어린애를 띠아소에 맡기고 즐겁게 일터로 향하는 녀성로동자들의 얼굴에도 로동의 희열이 함뿍 어려있었다. 활기에 넘쳐 일터로 오가는 북부조국의 풍경은 심각한 실업문제로 하여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이 비판과 우울에 잠긴 자본주의세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이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라 아니라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초소로 되고있는것이

였다. 귀하고 천한 직업이 따로 없었다. 누구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있었다.

나의 일터는 내가 지켜선 조국!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들어볼래도 들어볼수 없는 이 말을 나에게 해준 사람은 누구나 선뜻 선택하기 험치 않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말하는 《천한 직업》에서 한생을 일해온 녀성이었다.

그의 이름은 최정순, 신의주물정화사업소 위생시설수리공인 그의 가정은 도시경영부문의 한직업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까지 3대를 이어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다.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이제 일흔을 넘긴 그에게 무슨 재미로 한생을 일 해오는가고 숨김없이 물었다.

《주민들이 속상해하던것을 말끔히 고쳐주고 손을 씻을 땀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것보다 더 좋은것이 있나요?》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물이 안나오면 바께뜨로 길어먹을수도 있고 리발사가 없으면 다른 리발소에 갈수도 있다. 그러나 위생시설수리공이 없으면 도시의 생활흐름이 멎는다고.

그도 녀성이었다. 그리고 왜 다른 녀성들처럼 품게 차려입고 편안하게 살고싶지 않았을까.

중학시절 공부도 체육도 남달리 잘해 포부도 컸던 그에게 대학으로의 길이 열려져있었지만 한생을 수원지의 뽕뜨운전

공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보내주는 일이 얼마나 좋으냐!》라며 입버릇처럼 위우던 부모들의 뒤를 이어 도시경영부에서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뗐다.

하지만 한창 맵시를 불꽃나 이시절에 목긴 고무장화를 신고 한여름 피약별아래서 굶은 일을 하다 동창생들의 눈길과 마주칠 때면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어느날 최정순은 끝내 작업반장아이를 찾아갔다. 이 일만은 못하겠다고 울먹이는 그의 등을 다독이며 작업반장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오물을 쳐내고 도시를 깨끗이 하는 일은 인민들에게 복무하는 영예로운 일이라고 가르쳐주셨단다.》

그날밤 그는 오래도록 생각했다.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애국자가 되자.)

그때로부터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그의 일은 날과 달을 이어 끝없이 흘러갔다.

그 나날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부역이나 세면장의 하수관을 까고 수리하는 일은 남자들도 큰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인데 하물며 녀성이 그런 일에 한생을 바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일터는 마음에 따라 바꿀수 없는 직업이 아니라 량심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초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군 한 최정순녀성이었다. 그 나날 그는 네자식모두를 자기

와 한초소에 세웠다. 막내딸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치되었을 때 그는 말했다.

《수리해주려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 어떤 어려운것도 고칠 방도가 나진다. 이제 주민들이 너를 찾게 되는 그날이 오면 너도 네 일에 대해 긍지가 생길게다.》

최정순녀성에게도 참기 어려운 곤난이 없지 않았다. 1990년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한 시련은 그의 가정에도 덮쳐들었으나 모진 곤난을 이겨내며 그는 파비닐을 모으러 마물과 거리를 수없이 오고갔다. 그렇게 손끝에 피가 나게 마린한 비닐판들을 메고 주민들의 집을 찾아가 맑은물이 나오게 해주곤 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수리를 해주는것을 보며 《교묘해. 자네같은 애국자들이 많아 우리 제도가 끄떡없어지지.》라고 하며 그의 등을 어루만져주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사는 멋이로구나, 생활의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힘

든줄을 모른 그였다. 인민들이 기뻐하는 재미에 한생 기꺼이 쓴일을 해온 그에게 있어서 위생시설수리공의 직업은 제일 좋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것은 곧 조국을 위한 길이었다. 그의 한생이 이렇게 흘러갔다...

최정순녀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의 손을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농장원이나 건설자의 손보다 더 험했다. 그것을 보며 나는 손이 닳았다는 표현의 참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런 그의 손목에 나라에서는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채워주었고 그를 공훈도시관리공, 시민민회의 대의원 등으로 내세워주었다. 자기의 일터에서 인민을 위해 량심을 깡그리 바쳐온 그를 전국영웅대회에 불러주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서는 수십년간을 위생시설수리공으로 일해오고있는 최정순과 그의 자식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고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시었다고 한다.

그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최정순녀성과 같이 일터를 량심으로 빛내여가는 애국자들이 많고많아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북부조국이 끄떡없는것이라고.

헤어질 때 그가 하던 말이 인상깊게 남아있다.

《나의 일터는 내가 지켜선 조국이랍니다.

조국이 하나의 생명유기체라면 일터는 그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누구나 일터를 사랑하며 온넛으로 받들 때 조국이 부강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일터를 끝없이 사랑합니다.》

단발머리치녀시절부터 흰서리 내린 오늘까지 인민의 부름앞에 한번도 《못하겠습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라는 말을 해본적이 없는 그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은 한가지, 《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 누가 보진말건 깨끗한 량심으로 일터를 빛내여가는 최정순녀성이 한없이 돋보여 나 역시 그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다.

《늘지 마십시오!》... 새카나다동포 김 경 란

새 가정에 올린 고마움의 노래

얼마전 평양시 Moran봉구역 전승1동 51인민반의 한 아파트에서는 만사람의 축복속에 두 청춘남녀의 결혼식이 있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살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못사람들을 고마운 시선으로 더듬던 신부 명은주의 눈길은 자기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 박영남, 김금속부부에게 가 멎었다. 그들부부에게 다가가 신부 명은주는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하고 신랑 안철남과 함께 절을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그들사이의 남다른 관계를 잘 알고있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사실 박영남, 김금속부부는 신부 명은주를 낳은 친부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부부는 량부모를 잃은 명은주, 명중복오누이의 친부모가 되어 친딸, 친아들 못지 않게 그들을 따듯이 돌봐주고있었던것이다.

몇해전 어느 한 기업소에서 책임일군으로 일하는 박영남은 한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명은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홀로 남게 된 그들오누이가 박영남의 마음을 아프게 찢었다. 그에게는 그들오누이가 남의 자식처럼 생각되지 않았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원아들에게 부모의 정을 주어 그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항상 밝은 웃음속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결심했다. (명은주오누이의 친부모가 되어 우리 원수님 바라시는대로 그들이 한점의 그늘도 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훌륭히 키우자.)

그날밤 박영남의 집창가에서는 밤늦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박영남은 안해 김금속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모없는 설움에 잠겨있을 명은주오누이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네요. 부모없는 아이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더 밝고 명랑하게 자라라고 극진한 정을 부어주시는 원수님의 후대 사랑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그들의 친부모가 되어주는게 어떻소?》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우리 그들의 부모모기를 잘 합시다.》

이렇게 되어 박영남, 김금속부부는 스스로 명은주오누이의 친부모가 되었다.

그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쓸 아부를 자식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슬하에서 여섯

하게 자라 말은 초소에서 일을 잘하고있는 끝끝한 자식들이 있었다.

또 남들보다 무엇이 많아도 아니었지만 그들부부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사는 은주오누이의 가슴속에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원심을 쓰고 친형육의 정을 아낌없이 기울였다.

그들부부는 은주오누이의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필수품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었고 오누이의 생일날이 오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생일상을 풍성하게 차려주곤 하였다.

언제인가 동생 총복이가 급성중수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였다. 매일이다싶이 병원에 찾아가 총복이를 따듯이 돌보아주는 김금속을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그의 친부모인줄 알았다고 한다.

부모없는 오누이를 위해 바치는 그들부부의 정은 단순히 눈먼 사랑이 아니었다. 두해전 명은주가 동생일로 마음쓰면서 나약한 생각을 할 때에도 그가 조

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참답게 살아가도록 옹바로 이끌어 준 그들부부였다.

이들부부의 뜨거운 사랑속에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밝고 명랑하게 자란 은주가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였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식상을 차려주는거야 응당한 일이지.》

이렇게 말하며 박영남, 김금속부부는 자기 집에서 명은주의 결혼식을 차려주고 아들들이 장가갈 때 쓰려고 마련해두었던 옷감이며 부엌세간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이들부부만이 아니었다. 은주가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것을 알고 박영남이 일하는 단위에서와 은주가 다니는 직장, 온 인민반이 제일처럼 기뻐하며 너도나도 펼쳐나섰다. 참으로 극단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공화국과 같은 미덕의 대화원속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이었다.

하기에 뜻깊은 결혼식날 신랑신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신 하나의 대가정에서 모두가 친형육, 친형제가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목청껏 불렀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뚱뚱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신랑신부가 부르는 노래소리는 어느덧 합창으로 번져져 하늘가 멀리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본사기자 김 철

국경보존에 깃든 애국의 마음

최근 공화국에서 조선의 국경—풍산개의 원종보존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북부지대에 있는 유명한 풍산개의 원종을 보존하고 많이 번식시켜 널리 키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었다.

유태원 중앙동물원사양판리연구소 실장은 우리 나라의 국경인 풍산개의 과학적인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번식을 진행하는 원종보존체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풍산개의 원종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풍산개를 기르는 전국

의 여러곳을 편답하면서 조사연구를 심화시켰다.

그 나날 지방별로 분포되어있는 풍산개들중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혈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질과 생김새, 혈통에 있어서 순수한 원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풍산개

들을 찾이란 결코 쉽지 않았다.

유태원실장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풍산개의 특징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풍산개들의 개체들사이, 품종들사이 생태학적차이를 하나하나 밝히고 우량한 형질을 가진 표준개체들을 선별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풍산개의 원종을 보존하고 많이 번식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이로써 원종풍산개의 분자표식자를 구축하고 고유한 형질을 대물림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유태원실장은 풍산개에도 비할바없는 우수한 특징을 가진 단일적이고 순수한 혈통의 품종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보람찬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바쳐갈 결의를 피력했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은빛세계에 넓치는 희열과 낭만



수려한 산림과 청신한 공기, 천고의 자연이 준 생태환경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천연수림에 자리 잡은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다.

은빛세계 펼쳐진 천연수림의 아름답고 황홀한 설경을 부감하며 하얀 스키주로를 내려치지는 상쾌한 감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그래서인지 새해에 들어와 마식령스키장은 스키관광을 즐기러 찾아온 사람들로 매일같이 흥성이고 있다.

수많은 체육애호가들과 근로자들이 마식령스키장을 찾아 스키, 판스키, 눈오토바이, 스के트, 썰매타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봉사를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쾌하게 뿜어내린 스키주로를 따라 지치고 미끄러지고 어퍼러지며 스키타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희열과 낭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온 산발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익숙된 솜씨로 주로를 지켜내리며 민첩하게 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담찬 모습과 스키를 처음 타보면서도 마음만 앞서 주로를 지켜보겠다고 덤비다 넘어지는 사람들로 스키장은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스키주로의 여기저기에서 탄성을 터뜨리며 지켜내리는 사람들, 지쳐내리는 것만으로는 성취치 않은지 표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법 신

나게 지쳐내려오다가 넘어져 덩굴면서 온몸에 눈가루를 뒤집어쓰는 사람들도 있다.

경사가 급한 스키주로를 눈깜짝할사이에 지켜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절로 손에 땀이 내배인다. 누군가 환성을 터뜨리며 아래를 향해 미끄러져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갑자기 새처럼 날아올랐다가 가볍게 주로에 내려서는 데 타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들이 더 급해 비명을 내지른다.

그러나 하면 스키주로의 여기저기에서는 스키지도교원의 손을 잡고 열심히 스키를 배우는 사람들이 보인다.

방향을 잡지 못해 넘어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

람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마식령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은 스키타기만이 아니라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마식령호텔(1, 2호동)의 물놀이장과 운동실, 유희오락장에서 물놀이와 탁구, 장기, 바둑 등도 즐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천고의 수림속에서 자라는 산나물로 만든 마식령의 특산물로리들과 세계명료리들도 봉사받고 있다.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낭만에 넘친 웃음소리 끝없이 울려나오는 마식령스키장은 겨울철스키관광을 즐기고 자연환경속에서의 휴식을 바라는 사람들을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고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새로 건설된 강계스키장 개장식 진행

강계스키장이 새로 일떠서 개장되었다.

강계시교외의 자복산에 일떠선 스키장에는 썰매 및 초급스키주로, 중급스키주로, 사도, 수평승강기, 치료실 등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체육활동과 휴식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

새로 건설된 강계스키장 개장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김재룡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위원장은 개장사에서 강계스키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솟아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열데 대하여서는 1894년 올림픽경기대회 당시부터 논의되었다. 1908년 7월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된 제4차 올림픽경기대회에는 휘저경기가 진행되었으며 1920년 8월 벨지끄의 안트워프에서 열린 제7차 올림픽경기대회에는 휘저와 빙상호케이 경기가 있었다.

19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다음 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하여 정식으로 겨울철경기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차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실현하지 못하였다. 1922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토의되었지만 여기서도 야마츠후

거하고 어디서나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개장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스키장을 돌아보았으며 체육 및 봉사시설들을 리용하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침료법은 고려의학의 침치료방법의 하나로써 우리 겨례가 오래동안 립상활동을 통하여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의 귀중한 유산이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겨례가 수천년동안 의료활동을 통하여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화침료법에 대한 자료들은 고려의학고전들인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도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화침료법이란 침끝을

불에 벌겁게 달구어 재빨리 해당 부위나 침혈에 일정한 깊이로 찔러넣었다가 뽑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침치료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화침은 일반적으로 불수강이나 탕그스텐, 열프람간합금으로 만든 침을 쓰는데 대체로 길이가 2~3치, 침날의 직경이 0.5~2mm 되는 침을 쓴다.

침날이 비교적 굵은 화침(직경이 1.1mm 이상)은 주로 외과적질병들에, 중간정도의 화침(직경이 0.8mm)은 침혈부위들에, 가는 화침(직경이 0.5mm)은 주로 얼굴부위, 허약한 사람, 늙은이, 어린이들에게 쓰이고 있다.

화침치료는 침과 뜸의 치료효과를 다 가지고있기 때문에 립상에서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초기에 단순한 질병치료에만 국한되었던 화침료법은 오늘에 와서 200여가지의 질병치료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현대의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새로운 재질과 형태의 화침기구가 끊임없이 개량되면서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든 여러가지 형태의 난치성질병 치료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화국에서 전통적인 침구료법의 하나인 화침료법은 인민들의 병치료에 적극이바치고 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화침료법

단편소설

여울물소리 (4)

글 현명수, 그림 박봉혁

유진은 한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들면서 왼쪽흉벽을 예리한 송곳으로 후비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숙향은 창백해지는 유진의 얼굴을 발견하고 날쌔게 비상약을 꺼내었다. 실주름으로 뒤덮인 가느다란 손가락들을 날래게 돌리며 포장을 벗겨낸 그는 유진의 허아래에 약을 밀어넣었다.

《여보, 몹시 피로했나 봐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 고나서 서재문을 닫았다. 다음날도 날씨는 맑게 개였다.

유진은 숙향과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있었다. 향내가 입안에서 맴돌고 따끈한 음료는 목구멍을 적셔주었다. 눈부신 아침햇빛이 창가에 반사되어 아롱거리고 초가을

불에 벌겁게 달구어 재빨리 해당 부위나 침혈에 일정한 깊이로 찔러넣었다가 뽑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침치료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화침은 일반적으로 불수강이나 탕그스텐, 열프람간합금으로 만든 침을 쓰는데 대체로 길이가 2~3치, 침날의 직경이 0.5~2mm 되는 침을 쓴다.

침날이 비교적 굵은 화침(직경이 1.1mm 이상)은 주로 외과적질병들에, 중간정도의 화침(직경이 0.8mm)은 침혈부위들에, 가는 화침(직경이 0.5mm)은 주로 얼굴부위, 허약한 사람, 늙은이, 어린이들에게 쓰이고 있다.

화침치료는 침과 뜸의 치료효과를 다 가지고있기 때문에 립상에서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초기에 단순한 질병치료에만 국한되었던 화침료법은 오늘에 와서 200여가지의 질병치료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현대의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새로운 재질과 형태의 화침기구가 끊임없이 개량되면서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든 여러가지 형태의 난치성질병 치료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화국에서 전통적인 침구료법의 하나인 화침료법은 인민들의 병치료에 적극이바치고 있다.

본사기자

유진은 그의 손을 꼭 감싸 쥐었다.

《말하오, 무슨 일이 있는것 같은데...》

《일은 무슨...》

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아무래도 내가 알게 될일이겠지? 지금 아는게 낫소.》

《사실은...》 숙향은 하

스에 갔다고 하였더니 오면 꼭 알려달라면서 명함을 놓고 갔어요. 그의 말이 어쩐지 당신의 사과나무조직배양연구에 대해 호기심이 있어하는것 같던데... 인상이 밝고 명랑하고 또 레질이 맑은 청년이던데... 여하튼 좋은일이겠지요.》

(박인철?! 박석진의 아들인가?)

유진은 등받이에 몸을 실으며 다시 눈을 꼭 감았다.

(박석진... 그도 이제 늙었을테지... 활달하고 강직한 청년이었던 박석

숙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말할듯 하면서도 주저하는 눈치였다.

(웬 일일까?)

유진은 10년전 박석진을 만나러 뿔스개로 간적이 있었다. 신문에서 뿔스개를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대표단 단장이 박석진임을 알게 된것이였다. 옛 친구를 만날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날아간 그였지만 석진을 만날수 없었다. 석진은 《나에게 유진이라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와 나는 대학동창이다. 그러나 나의 벗 김유진은 내가 조국으로 귀국하던 날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유진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싶었다.》

유진은 실망감을 안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유진에게 있어서 석진은 대학동창이기 전에 친형제같은 사람이였다. 그들은 함께 이국의 땅에서 고학의 눈물도 흘렸고 왜놈들의 인종차별과 모진 수모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수난의

숙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말할듯 하면서도 주저하는 눈치였다.

(웬 일일까?)

유진은 10년전 박석진을 만나러 뿔스개로 간적이 있었다. 신문에서 뿔스개를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대표단 단장이 박석진임을 알게 된것이였다. 옛 친구를 만날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날아간 그였지만 석진을 만날수 없었다. 석진은 《나에게 유진이라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와 나는 대학동창이다. 그러나 나의 벗 김유진은 내가 조국으로 귀국하던 날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유진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싶었다.》

유진은 실망감을 안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유진에게 있어서 석진은 대학동창이기 전에 친형제같은 사람이였다. 그들은 함께 이국의 땅에서 고학의 눈물도 흘렸고 왜놈들의 인종차별과 모진 수모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수난의

숙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말할듯 하면서도 주저하는 눈치였다.

(웬 일일까?)

유진은 10년전 박석진을 만나러 뿔스개로 간적이 있었다. 신문에서 뿔스개를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대표단 단장이 박석진임을 알게 된것이였다. 옛 친구를 만날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날아간 그였지만 석진을 만날수 없었다. 석진은 《나에게 유진이라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와 나는 대학동창이다. 그러나 나의 벗 김유진은 내가 조국으로 귀국하던 날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유진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싶었다.》

유진은 실망감을 안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유진에게 있어서 석진은 대학동창이기 전에 친형제같은 사람이였다. 그들은 함께 이국의 땅에서 고학의 눈물도 흘렸고 왜놈들의 인종차별과 모진 수모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수난의

언덕을 어깨걸고 넘어왔던것이다. 그런 석진에게서 배척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유진은 자기의 인생이 더없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수 없었다.

석진이 말한 유진의 《장례날》, 그날은 바로 석진의 결혼식날이였다. 석진은 귀국을 앞두고 부랴부랴 사랑하는 조선청년와의 혼인식을 서둘렀던것이였다. 결국 석진은 신혼여행겸 귀국을 하게 되였다.

대학시절의 박석진은 술한 처녀들의 구혼의 눈길을 받아온 총아였다.

침착하고 과묵한 유진과 달리 석진은 결결하고 직통배기였으며 대학교 구름의 기둥선수였다. 학기에 전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치고 석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보통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의 꺾두룩한 키, 운동복을 입고 나설 때의 근육이 불끈거리는 우람진 체구, 호랑한 웃음소리... 익숙 사나다운 이 모든것이 표형의 처녀들의 시선을 끌었던것이였다.

숙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말할듯 하면서도 주저하는 눈치였다.

(웬 일일까?)

유진은 10년전 박석진을 만나러 뿔스개로 간적이 있었다. 신문에서 뿔스개를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대표단 단장이 박석진임을 알게 된것이였다. 옛 친구를 만날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날아간 그였지만 석진을 만날수 없었다. 석진은 《나에게 유진이라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와 나는 대학동창이다. 그러나 나의 벗 김유진은 내가 조국으로 귀국하던 날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유진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싶었다.》

유진은 실망감을 안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유진에게 있어서 석진은 대학동창이기 전에 친형제같은 사람이였다. 그들은 함께 이국의 땅에서 고학의 눈물도 흘렸고 왜놈들의 인종차별과 모진 수모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수난의

